

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이유리



송윤아



문정희

주말 안방극장 장악한 세 여배우

‘왔다! 장보리’ 이유리... 기상천외한 악행

‘마마’ 송윤아·문정희... 예술적인 신파연기

드라마의 완성도와 수준을 놓고 혀를 차도 어쩔 수 없다. 개연성을 두고 손가락질을 해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의 연기는 일단 한번 보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것 같다. 통속극에서 만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던 불꽃 열연이 안방극장을 수놓는다. 종영을 1~2주 남겨둔 MBC TV ‘왔다! 장보리’의 이유리(34)와 MBC TV ‘마마’의 송윤아(41), 문정희(38) 얘기다.

이들의 열연은 지상파 방송3사가 아침까지 내놓는 월화극과 수목극이 총체적으로 난국인 상황이라 더욱 화제다. 또 힘을 준 시대극이나 사극도 아닌, 평범한(어쩌면 평범 이하일 수도 있는) 통속극 속에서의 열연이라 더욱 빛난다.

◇이유리, 심은하의 ‘청춘의 덫’ 밥심 이후 최고 연기=종영을 단 2회 남겨둔 ‘왔다! 장보리’는 악녀 연민정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상태다. 연민정의 악행이 하도 기상천외하고 불굴의 의지로 끊임없이 전개되는 까닭에 ‘왔다! 장보리’는 뒤로 갈수록 막장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

제작진은 주인공 보리의 ‘닥치고 박애정신’으로 조금이라도 면피를 해볼까 바라는 것 같지만 궁지에 몰린 연민정의 발악과 그 내용의 격렬한 전개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하지만 그림에도 연민정을 맡은 이유리가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신들릴 듯한 연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섬뜩한 표정으로 간악한 모사를 꺾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내뱉다가도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철철 울고, 그러다가 미친 듯이 웃어짓히는 이유리의 연기는 집합기경이다.

뒤로 갈수록 더욱 풍성하고 흥미로운 연기를 하고 있다. 특히 울다가 웃는 사이코패스 같은 연기는 압권이다. 유산한 후 오열하는 연기는 소름이 끼칠 정도.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기자의 한없이 가볍고 엉성한 표현이 아니라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180도 변신을 이유는 자유자재로 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일 그 보여준 광란의 밥 먹는 연기는 15년 전 심은하가 ‘청춘의 덫’에서 보여준 그 유명한 밥심 이후 최고의 연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춘의 덫’에서 심은하는 홀로 키우던 딸을 사고로 잃은 후 정신줄을 놓다가 털고 일어나 밥을 꾸역꾸역 먹었다. 슬픔이 독독 묻어나는 이 처연한 밥심은 두고두고 회자가 됐다.

이유리는 이날 두 차례 밥심을 선보였는데 둘 다 백문이아붙어 일견이다. 하나는 재벌가 며느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 끈인 임신을 했다는 기쁨에 기고만장해서 토스트를 우적우적 사남게 먹는 장면이었고, 또 하나는 그 급속같은 태아를 유산 해놓고는 시치미를 떼고 시어머니 앞에서 비빔밥을 숟가락 뜨고 이 깨걸스에 먹여치우는 장면이었다.

두 장면 모두 이유리는 입안 가득 음식을 밀어 넣은 채 대사를 주저리주저리, 명료하게 뱉어냈다. 동시에 웃다가 능청 떨다가 분노하는 감정연기를 소화해냈다. 행연이 어렵다.

◇송윤아·문정희, 시너지 효과 극대화=종영까지 4회 남은 ‘마마’도 그 내용은 새로운 게 없다. 전형적인 신파극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두 여주인공인 송윤아와 문정희의 내공이 흡수 묻어나는 연기 덕에 시청의 몰입도를 높인다. 고생 끝 성공했지만 시한부를 선고받아 생애같은 아들을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한승희와 그런 한승희가 사실은 자기 남편의 아이를 홀로 키워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온 마음을 다 썼다가 뒤늦게를 맞은 서지은이 주고받는 감정과 이야기는 통속극의 상투성을 벗어난다.

그 나뭇잎이 그 밥이 아니라, 같은 재료라 해도 인물 속으로 들어간 배우의 연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신파극 연기도 예술의 경지가 될 수 있음을 송윤아와 문정희는 보여준다.

한승희로 분한 송윤아의 땅으로 깔릴 것 같은 차분하고 가라앉은 톤과 서지은으로 분한 문정희의 티없이 맑고 순수한 톤이 부조화 속 조화를 이루며 양상을 낸다.

실제 현장에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송윤아는 오랜만의 연기 복귀작에서 인생의 깊이가 한 뼓 깊어졌음을 연기에 녹여내고 있다. 위양 맡기 환자의 신체적 고통과 세상이 홀로 남은 아들에 대한 애끓는 모정, 생전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 보인 친구 서지은에 대한 말로 다할 수 없는 미안함이 모두 깊은 회한 속 절절하게 표현된다.

문정희는 구김살 없이 자라나 순진하고 애교가 넘치는 밝은 캐릭터에서 하루아침에 치욕적인 배신감에 휩싸이는 인물을 설득력있게 그리고 있다. 초반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줌마를 연기하며 티티없이 깨알같이 살아있는 연기를 펼치더니, 후반에는 배신감에 휩싸인 서지은의 심리 변화를 시청자가 마찰을 없이 따라갈 수 있게 이음새 없이 그 변화를 소화해내고 있다.

덕분에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 한승희와 서지은이 서로에게 향해 보내는 애절한 마음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시청자에게 전해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물들의 기막힌 사연과 처지가 이 두 배우를 만나 손에 쥔 듯한 생명력을 띠게 됐다.

직장인 필독 웹툰 ‘미생’ 드라마로 재탄생



tvN 드라마 ‘미생’ 17일 첫 방영

지난 여름 바둑을 소재로 한 영화 두편이 개봉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바둑에서 출발한 드라마가 선보인다.

오는 17일 오후 8시40분 첫선을 보이는 tvN 금토드라마 ‘미생’이다. 만화작가 윤태호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생’은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주인공이 프로 입단에 실패한 후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다. 회사원들의 분투와 우정이 살아있다. 주인공 장그래 역은 그를 제국의아이들 멤버 임시완(사진)이 맡았다. 장그래는 바둑에 대한 꿈을 접고 종합무역상사의 인턴사원으로 입사한다.

6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임시완은 “나 역시 연습생과 가수 시절을 거치며 몸 담고 있는 곳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렸을 때는 데뷔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장그래가 입사하는 게 끝이 아닌 시작이구나 역시 데뷔도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사외구성원이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데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때의 경험과 느낌을 살려 장그래

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민은 통찰력과 승부사적 기질을 가졌지만 ‘곤 떨어진’ 워커홀릭 오상식 과장을 연기한다. 오상식은 장그래의 멘토가 된다. 얼마 전 드라마 ‘닥터 이방인’을 끝낸 강소라는 ‘미생’에서 당당한 신입사원 안영이로 분한다. 거친 남자의 세계에 들어간 당찬 여성이다.

강소라는 이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라브라인이 없어서”라고 밝혔다.

그는 “연예보다 일에 비중이 많은 드라마를 하고 싶었다. 미국 드라마를 보면 라브라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에 강하늘, 김대명, 변요한까지 6명의 배우가 종합무역상사 원터내셔널의 셀러맨 인생사를 그려가게 된다. 제작진은 “원작 웹툰은 사회 초년생의 눈으로 직장인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셀러맨의 교과서’라는 애칭을 얻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며 “드라마 역시 웹툰의 재미를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김원익 PD는 “미생의 중심은 장그래와 오과장에서 느껴지는 남자들의 우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BS

Table with 4 columns of EBS program schedules for the day of 10/8, including World News Review, EBS 뉴스, and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of EBS Plus 1 program schedules, including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and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of EBS Plus 2 program schedules, including 경비지도사 시험대비 강좌 and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8일(음 9월 15일 壬子)

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운세)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운세) for various zodiac signs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